

# 현안과 과제

| 통독 이후 구동독의 경제 성장과 시사점  
- 통일 이후 북한경제 활성화 방안

## Executive Summary

### □ 통독 이후 구동독의 경제성장과 시사점 : 통일 이후 북한경제 활성화 방안

**(구동독 지역 재조명)** 통일 이후 구동독 1인당 GDP는 구서독대비 1991년 33.3%에서 2010년 69.2%로 증가했다. 구동독은 통일 직후에는 기존 산업 붕괴, 인구 감소 및 높은 실업률로 고통 받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견조한 경제성장, 성공적인 경제 모델의 등장 및 동유럽으로 연결하는 브릿지로서의 지리적 중요성 등으로 재조명 받고 있다.

**(구동독 지역의 경제성장)**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은 지난 20년 간 구서독 지역보다 평균 2배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고, 1인당 GDP도 223% 증가하였다. 붕괴됐던 산업 기반도 최첨단 산업 위주로 구조조정되고 서비스업도 발전하면서 60% 초반에 머물던 고용률이 2010년 73.8%로 높아졌고, 기업의 해외매출 비중도 1995년 12.2%에서 2010년 34.7%로 2.8배 커졌다.

**(구동독 경제성장의 6대 배경)** 구동독의 경제 성장과 동서독 간 격차 해소의 배경은 6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에는 인프라 확충과 주택 재건축 등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면서 경제가 성장하였다. 1990년부터 2019년까지 독일과 EU의 기금을 합하여 연평균 약 140억 유로(20조원)가 매년 투자되고 있다. **둘째**, 연방 정부가 지역발전 정도를 감안하여 지역개발 자금도 낙후된 구동독 지역에 차별적으로 집중 지원되었다. 통일 이후, 연방정부의 지역개발 자금은 구동독 지역에 약 85%, 구서독에 약 15% 투자되고 있다. **셋째**, 독일의 글로벌 기업들이 중앙 정부의 투자인센티브에 따라 구동독에 투자하여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넷째**, 수출 환경도 개선되었다. 동유럽의 EU가입, FTA 확산, 낮은 임금 상승률이 구동독 지역의 수출이 지난 20년 동안 약 9배 증가하는데 기여했다. **다섯째**, 구서독의 경제개발 모델과 연구개발 네트워크가 구동독에 성공적으로 이식되었다. **마지막으로**, 구동독 지역에 특화된 산업 클러스터들이 조성되고 있다.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에는 48개의 클러스터가 조성됐고 이 중 9개는 독일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클러스터 100개를 선정하는 '독일 경쟁력 네트워크'에 포함될 정도로 경쟁력이 높아졌다.

**(시사점)** 위와 같은 구동독의 사례를 통해 남북한 통일 이후 북한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한 통일이 북한 지역의 인프라 투자 및 경제개발을 위한 장기적 재원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 공적 자금, 국제 민간 자본의 동원 계획도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북한 지역을 노동, 자원, 기술 집약에 따라 구분하여 지역 특성과 경쟁우위를 살린 산업단지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육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한의 성공적 발전모델이 북한의 특성에 맞게 성공적으로 이식될 수 있도록 양쪽 모두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 1. 구동독 지역 제조명

○ 통일 이후, 기존 산업 붕괴, 인구 감소 및 높은 실업률 등으로 고통받던 구동독 지역이 견조한 경제성장, 성공적인 경제 모델의 등장, 동유럽으로의 브릿지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제조명 되고 있음

- 높은 물가, 실업률 및 기존 산업 붕괴 등으로 신음하던 구동독 경제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안정화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통일 직후 구서독 마르크화의 1:1 교환과 건설 투자 확대 등으로 상승했던 물가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2%대로 안정되었고, 기존 산업 붕괴 등으로 최고 17~18%까지 달했던 실업률도 최근 10%대 초반까지 떨어짐

· 구서독으로의 이주과 출산률 저하 등으로 1991년 1,790만명에서 2010년 1,634만명으로 줄어든 구동독 지역의 인구 감소세도 낮아지고 있음

· 또한, 구동독 지역의 작센 州가 드레스덴-라이프찌히-쾨니츠를 ICT 클러스터, 상업/교역의 중심지, 기계 공학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성공적인 경제 개발 모델로 인식되고 있고 동유럽 시장으로 연결하는 브릿지로서 역할도 중요해짐

○ 독일은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의 경제 개발을 통해 구서독과의 경제 격차를 꾸준히 줄여온 바, 향후 남북한 통일 이후 북한 경제 개발과 격차 해소를 위해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판단됨

- 구서독 대비 구동독 지역의 1인당 GDP는 1991년 통일 직후 33.3%에서 2010년 69.2%로 꾸준히 그 격차를 줄여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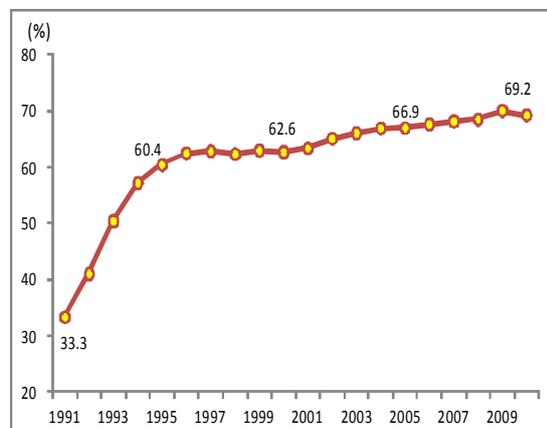
<구동독 경제지표 추이>

(단위: %, 만명)

	실질 성장률	물가 상승률	실업률	인구	
					유출
1992	7.8	13.5	14.5	1,789.7	-17.4
1995	5.3	2.1	14.0	1,767.5	-6.4
2000	1.5	1.7	17.1	1,728.4	-9.1
2005	0.4	2.1	18.7	1,677.9	-8.6
2010	2.0	1.1	11.9	1,633.8	-7.3

자료: 독일 통계청 외.

<구서독 대비 구동독의 1인당 GDP 비중>



자료: 독일 통계청.

## 2. 구동독 지역의 경제성장

○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은 지난 20여년간 구서독 지역보다 평균 2배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 꾸준히 발전

- 통일 이후, 독일의 명목 GDP는 1991년 1조 5,346억 유로에서 2010년 2조 4,988억 유로로 1.6배 정도 증가됨
  - 전체 독일 GDP에서 구서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88.9%에서 2000년대 84.8%로 약 4%p 낮아짐
  - 반면, 구동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7.0%에서 2000년 11.4%로 늘어났고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11.6%를 기록함
- 구동독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20년 동안 평균 5.6%로 구서독 지역의 2.4%보다 2배 정도 높았음
  - 통일 초기 구동독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건설투자의 붐으로 20%를 넘었지만 1997년부터 2005년까지는 독일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1~2%대로 낮아졌음
  - 이후 독일의 개혁 정책과 경제 호황으로 4%대로 올라서기도 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와 연이은 유로존 재정위기로 성장률은 재차 하락하였고 구서독 지역보다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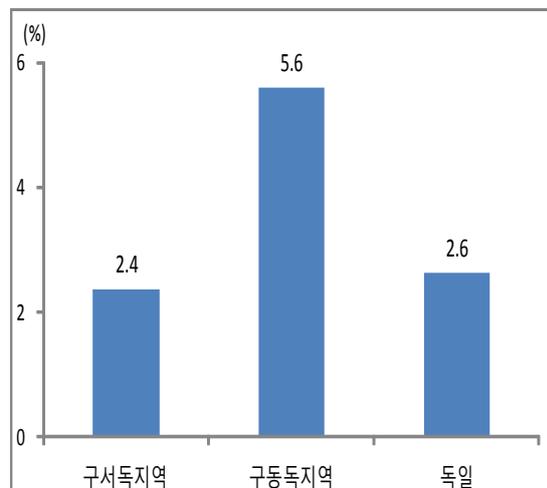
<독일의 GDP 규모 변화 추이>  
(단위:억 유로)

	독 일	구서독	구동독	베를린
1991	1,534.6	1,364.0 (88.9)	107.3 (7.0)	63.4 (4.1)
1995	1,848.5	1,559.5 (84.4)	209.1 (11.3)	79.9 (4.3)
2000	2,062.5	1,749.5 (84.8)	234.6 (11.4)	78.4 (3.8)
2005	2,242.2	1,903.3 (84.9)	259.6 (11.6)	79.3 (3.5)
2010	2,498.8	2,115.5 (84.7)	288.6 (11.6)	94.7 (3.7)

자료: 독일 통계청.

주: ( )는 독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평균 경제 성장률>



자료: 독일 통계청.

주: 1992~2010년 평균 GDP성장률임.

○ 1인당 GDP도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상승하여 구서독 지역 대비 약 70%,  
취업자 1인당 기준으로는 약 80%대 수준까지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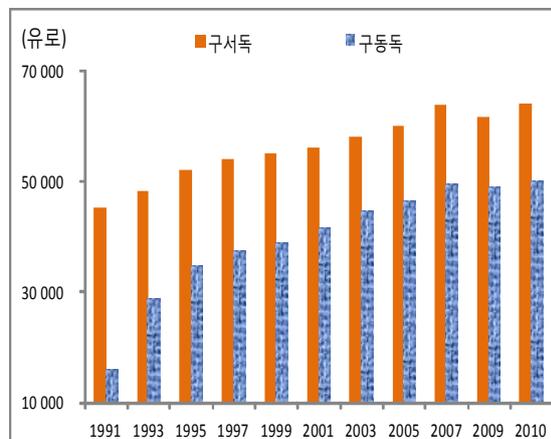
- 독일의 1인당 GDP가 지난 20년 사이 59.3%, 구서독 지역이 47% 늘어난 반면, 구동독 지역은 223%가 증가하여 경제 격차가 크게 축소됨
  - 독일의 1인당 GDP는 1991년 19,186 유로에서 2010년 30,566유로로 59.3% 증가하였고, 동기간 구서독 지역은 22,030유로에서 32,340유로로 47% 늘어남
  - 한편, 구동독 지역의 1인당 GDP는 1991년 7,330유로에서 2010년 22,384유로로 205% 증가했고, 구서독 대비로도 동기간 33.3% 수준에서 69.2%로 높아짐
- 구동독의 취업자 1인당 GDP는 지난 20년 동안 구서독의 35% 수준에서 78% 수준까지 향상되었고, 임금 수준도 구서독의 79.5%까지 높아짐
  - 구동독의 취업자 1인당 GDP는 1991년 15,785유로에서 2010년 49,904유로로 216% 증가되었고, 구서독 대비로도 동기간 35%수준에서 78%로 높아졌음
  - 또한, 구동독의 임금 수준도 1991년 11,097유로에서 2010년 23,211유로로 상승하였는데 구서독 대비로도 51.0%에서 79.5% 수준까지 향상됨

<독일의 1인당 GDP 및 비중 추이>  
(단위: 유로, %)

	독 일	구서독	구동독	구동독/ 구서독
1991	19,186	22,030	7,330	33.3
1995	22,636	24,372	14,720	60.4
2000	25,095	26,956	16,878	62.6
2005	27,190	28,976	19,392	66.9
2010	30,566	32,340	22,384	69.2

자료: 독일 통계청.

<취업자 1인당 GDP 비교>



자료: 독일 통계청.

○ 구동독은 1990년 중반 경쟁력 하락으로 기존 산업이 붕괴된 이후 첨단 산업 위주의 산업 구조 조정과 서비스업 발전을 통해 고용 상황도 점차 개선시켜 나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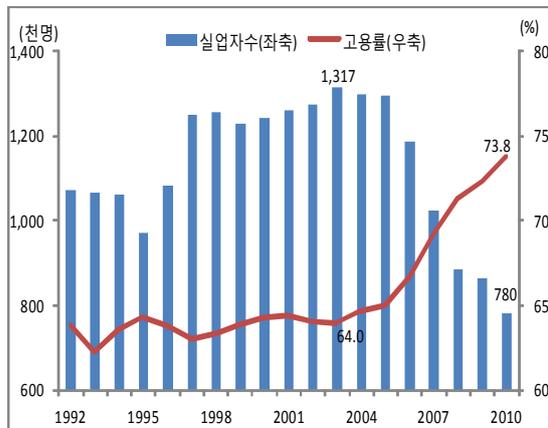
- 통일 이후 17~8%대까지 상승했던 구동독 지역의 실업률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최첨단 클러스터의 개발과 서비스업의 확대 등으로 10%초반대로 낮아짐

- 구동독 지역에는 2000년 이후 태양광 클러스터, ICT 및 나노 클러스터, 바이오 클러스터 등이 성공적으로 조성되었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획득해 가고 있음
- 이에 따라 2000년대 중반까지 60% 초반으로 정체되었던 구동독 지역(베를린 제외)의 고용률이 2010년 73.8%로 높아졌고, 실업자도 2003년 131.7만명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락하여 2010년 78만명으로 53.7만명이 감소
- 2005년 19%대에 달했던 구동독 지역의 실업률도 2010년 11%대로 낮아졌고, 최근 독일의 고용기적과 함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음

○ 구동독 지역의 산업 구조조정 이후 제조업과 수출 경쟁력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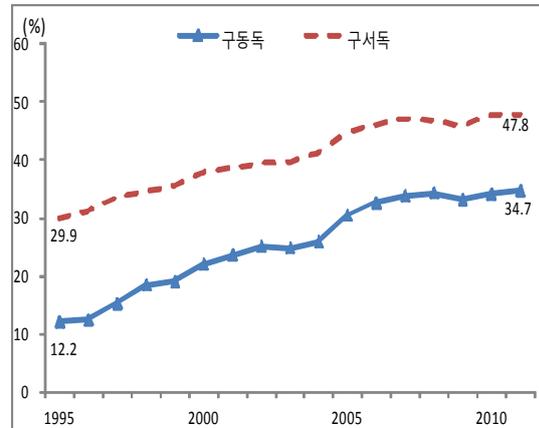
- 제조업 경쟁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비스업 비중도 크게 확대
  - 구동독 지역(베를린 제외)의 부가가치는 1991년 983억 유로에서 2010년 2,587억 유로로 2.6배 증가
  - 산업구조도 1991년 제조업 14.2%, 서비스업 62.2%에서 2010년에는 제조업이 17.5%, 서비스업 71.1%로 변화됨
- 내수 비중이 높은 가운데 최근 경쟁력 상승으로 수출 비중도 꾸준히 증가
  - 구동독 지역의 수출 비중은 1995년 12.2%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11년 34.7%로 약 2.8배 상승한 반면, 구서독 지역은 동기간 29.9%에서 47.8%로 1.6배 커졌음

<구동독지역 고용 추이>



자료: 독일고용청 통계.  
주: 실업자수는 독일 통계 기준임.

<기업의 해외매출 추이 >



자료: 독일 통계청.  
주: 50명이상 제조 기업의 총매출액 중 해외매출 비중.

**<참고> 구서독과 구동독의 주(Land)별 경제현황**

- 2010년 기준, 독일의 16개 주(Land) 중 GDP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바이에른, 바덴 뷚템베르크 순
  - 독일은 함부르크, 브레멘의 자유도시를 포함하여 총 16개 주(Land)로 구성되며 그 중 구동독 지역은 튀링겐, 작센, 작센 안할트,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른의 5개 주임
- 구동독 지역에서는 작센 州의 GDP 규모가 가장 큰데 1991년 대비 2.6배 증가했고, 구서독의 슐레히 홀스타인, 자알란트 주보다 경제규모가 더 커졌음
  - 구동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도 독일 전체가 100일 때, 1991년에는 40 수준이었으나 2010년에는 80 수준으로 증가했고, 실업률도 2005년 17~20% 수준에서 10% 초반대로 낮아짐

**<독일의 주별 경제발전 추이>**

		GDP 규모 (억 유로)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독일=100)			실업률		
		1991	2000	2010	1991	2000	2010	1995	2005	2010
구서독 지역	바덴 뷚템베르크	2,319	2,974	3,617	114.2	105.5	104.8	6.6	7.0	4.9
	바이에른	2,614	3,594	4,424	109.5	107.8	107.1	6.0	7.8	4.5
	브레멘	183	221	277	115.0	108.3	115.4	12.9	16.8	12.0
	함부르크	562	726	883	138.9	132.1	125.9	9.5	11.3	8.2
	헤센	1,415	1,831	2,250	121.7	114.3	116.4	7.6	9.7	6.4
	니더-작센	1,403	1,801	2,140	106.8	97.0	93.6	9.8	11.6	7.5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3,691	4,542	5,430	115.5	101.8	101.0	9.7	12.0	8.7
	라인란트 팔츠	731	910	1,076	110.0	97.9	93.5	7.6	8.8	5.7
	슐레히 홀스타인	509	649	756	106.4	98.8	95.6	8.1	11.6	7.5
	자알란트	207	247	301	108.5	92.6	96.0	10.7	10.7	7.5
	베를린	634	784	947	95.4	94.4	91.1	12.4	19.0	13.6
구동독 지역	작센	359	757	950	40.5	72.8	78.9	13.6	18.3	11.8
	작센 안할트	203	433	522	40.3	77.6	83.4	15.7	20.2	12.5
	튀링겐	172	406	499	35.6	72.4	79.0	14.1	17.1	9.8
	브란덴부르크	196	450	558	41.8	80.2	84.6	13.4	18.2	11.1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른	143	301	358	43.0	76.1	79.7	15.3	20.3	12.7
독일		15,346	20,625	24,988	100	100	100	8.3	11.2	7.7

자료: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2010.

### 3. 구동독 경제 성장의 6대 배경

#### (1) 인프라 및 주택 재건축에 대한 투자 확대

○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에는 인프라 확충과 주택 재건축 등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면서 경제 성장을 이끌었음

-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의 경제 개건과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2019년 까지 약 4,200억 유로 이상이 투자

· 1990년부터 2019년까지 구동독 지역의 경제 재건과 인프라 확충 등에는 총 3,432억 유로가 투자

· 재원 조달로 살펴보면, 독일 통일자금(1990~1994년) 822억 유로, 연대 기금 I (1995~2004년) 1,050억 유로, 연대 기금 II (2005~2019년) 1,050억 유로와 특별 경제개발 지원 자금 510억 유로로 구성됨

· 이외에도 구동독 지역의 경제 개건에 EU구조기금 348억 유로, 농촌 지역 개발에 EU 농업기금 318억 유로와 EU구조기금 자금 74억 유로가 지원

- 구동독과 구서독의 교통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지난 20년 간 700억 유로가 투자되었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음

· 1991년부터 2010년까지 구동독 지역 연방철도 건설에 308억 유로, 고속도로에 329억 유로, 수로 38억 유로 등 약 700억 유로가 인프라 건설에 투자됨

· 구서독과 구동독의 인프라 연결을 위해 1991년 4월 독일 통일 교통프로젝트 (Verkehrsprojekte Deutsche Einheit; VDE)가 설립되었고 현재까지 9개의 연방철도, 7개의 고속도로 및 1개의 수로 공사를 시행됐고 약 95%가 완성됨

#### <구동독 지역의 투자 자원 내역>

투자 자원	투자 목적	기간	규모(억 유로)
독일 통일자금	연방정부의 특별자금임	1990 ~ 1994	822
연대 기금 I	구동독 지역 경제 재건	1995 ~ 2004	1,050
연대 기금 II	인프라 결핍 지역 지원 외	2005 ~ 2019	1,050
특별기금	지역경제 성장 지원 외		510
EU 구조기금	지역 경쟁력 확보와	2000 ~ 2006	183
	고용 지원	2007 ~ 2013	165
	농촌 개발 지원	2000 ~ 2006	74
EU 농업기금	농업 지원	1996 ~ 2008	227
	농촌 개발 지원	2007 ~ 2013	91

자료:독일통일백서, 2011.

주: 2011년 말 기준, 구동독 지역에 이미 투자되었거나 2019년까지 계획된 규모임

(2) 지역 격차 해소에 집중한 지역개발 정책

○ 독일의 지역정책은 연방정부가 지역발전 정도를 감안하여 지역개발 자금을 차별적으로 지원하는데, 낙후된 구동독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짐

- 연방정부의 지역개발자금(GRW)<sup>1)</sup>의 수혜 비중은 지난 20년간 구동독 지역이 약 85%, 구서독은 약 15%로 구동독 지역의 경제 성장의 밑바탕이 되어왔음
- 1990년 통일 이후 독일 지역정책은 동·서독간 지역격차 해소에 집중
- 연방정부의 지역개발자금 지원을 위한 지역 구분은 GRW 위원회에서 고용지표와 소득지표를 이용하여 산출한 지표가 바탕이 되는데, 지역구분과 지원 상한선은 일정 기간 후 재평가를 통해 변화됨

<독일의 지역 경제 발전에 따른 구분><sup>2)</sup>

구분	지원상한선	해당 지역
A 지역	- 대기업 30% - 중기업 40% - 소기업 50%	- 베를린을 제외한 구동독지역이며, 라이프찌히 등 일부 지역은 '통계적 효과지역으로 구분'되어 지원상한선이 낮음
C 지역	- 대기업 15% - 중기업 25% - 소기업 35%	- 쉘레히 홀스타인과 니더 작센 일부지역, 바이에른 주의 체코 국경지역
D 지역	- 중기업 10% - 소기업 20%	- 헤센, 니더작센, 쉘레히 홀스타인 일부지역이
비 지원 지역	- 함부르크, 바덴 뷚템베르크의 전지역과 바이에른, 노스트라인 베스트팔렌, 라인란트 팔츠의 대부분의 지역이 해당	
지역구분 지표	평균실업률(직전 4개년), 근로자 총연봉, 고용률 추정치 및 경제 인프라의 질적 수준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 값을 지역 구분에 활용	

자료: BMWi(독일 연방 경제기술부).  
주: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사업기간 동안의 지역 구분임.

- 특히, 구동독의 작센 주는 기존 산업의 경쟁력과 동유럽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으로 지역개발 자금의 약 30% 수혜를 받으며 빠르게 발전
-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구동독 지역 경제 개발을 위해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총 3,073억 유로를 지원했는데, ERP특별자금<sup>3)</sup> 1,249억 유로, GRW 지역개발자금이 1,824억 유로로 구성

1) 통일 이전 구서독 지역에서는 1969년 지역경제구조 향상을 위한 공동위원회(Joint task of "Improvement of regional economic structure(GRW))구성을 통해 연방정부가 발전이 지체된 주를 지원하고 지역간 재분배를 통해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음  
2) p.15, 독일의 지역개발자금 지원을 위한 지역 구분 지도 참조.  
3) ERP특별자금은 1948년 마셜플랜의 독일 경제 재건을 목적으로 지원된 자금으로 이후 연방정부의 지역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 자금으로 변경

- 그 중 작센 州는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개발을 목적으로 ERP 자금 340억 유로, 지역개발 자금 550억 유로로 총 자금의 28.9%를 지원 받아 경제가 빠르게 성장

**<연방정부의 구동독 지역 개발자금 지원(1991~2010년)>**

(단위:억 유로)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작센안할트	작센	튀링겐	구동독 지역합계
ERP자금	52	212	193	213	340	239	1,249
지역개발 자금	97	332	168	386	550	292	1,824
합계	149	544	361	599	890	531	3,073

자료: 독일 통계청.

**(3) 제조업 생산기지로 활용**

○ 독일의 글로벌 기업들이 중앙과 지방 정부의 인센티브를 통해 구동독 지역에 투자하면서 제조업 생산기지로 활용하였고, 이에 따라 통일 이후 독일의 내수시장도 20년 만에 2배 규모로 확대됨

- 독일 글로벌 기업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투자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구동독 지역에 제조업 생산기지를 설립
  - 통일 초기, 대규모 보조금 지원 등 투자 유인 정책으로 폴스바겐은 드레스덴, 포르쉐와 BMW는 라이프찌히, Infineon과 AMD등은 드레스덴에 대기업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
  - Carl Zeiss, Yenoptik 등 세계적인 광학 기업들도 튀링겐 주의 예나, 롤스 로이스 사는 항공기 엔진 생산기지를 브란덴부르크 달레비치에 설립함
  - 이외에도 독일 우체국이 라이프찌히에 세계 3위 규모의 DHL 대규모 항공 물류 단지를 설립함으로써 구동독 지역은 서유럽과 동유럽을 연결하는 물류, 교통의 중심지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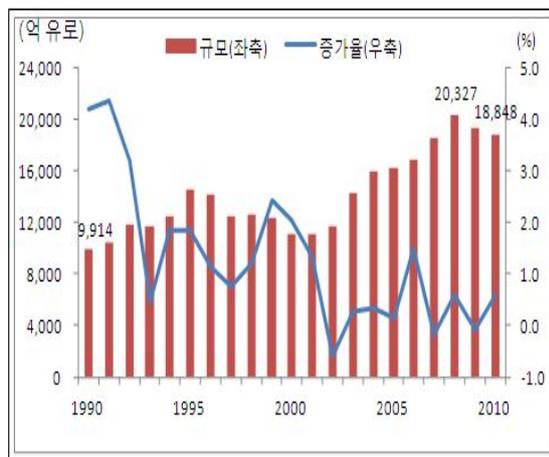
- 이로 인해 독일의 내수시장 규모도 1990년 9,914억 달러에서 2010년에 1조 8848억 달러로 2배로 커지면서 기업 활동이 더욱 활발해짐
  - 통일 이후 꾸준히 성장했던 독일 내수시장은 1995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동독 지역의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위축되었으나, 2003년 이후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고용 증대로 내수시장은 재차 확대됨
  - 2008년 독일의 내수시장 규모는 2조 327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소폭 축소됨

<구동독 지역에 독일 글로벌 기업의 투자>

투자산업	내 용
자동차 생산 기지	라이프찌히 ( 포 르 쉘, BMW), 드레스덴(폴스바겐)
광학기술	예나(Carl Zeiss, Yenoptik 외)
물류 단지	라이프찌히(DHL 항공 물류 단지)
태양광 산업	에르푸르트-할레(보쉬 외)
ICT	드레스덴(Infineon 외)

자료: 내외신 보도자료 참조.

<독일 내수시장 규모 및 증가율 추이>



자료: 세계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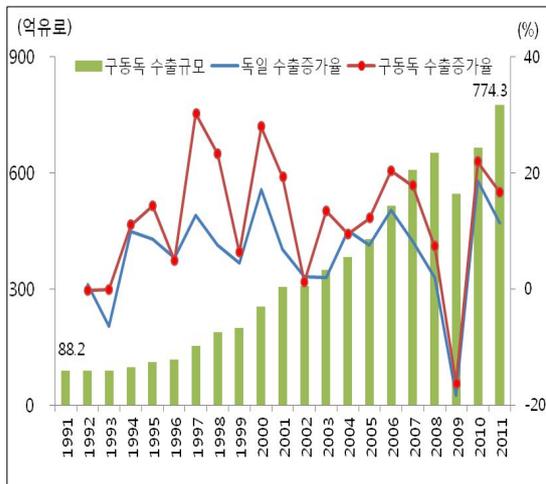
#### (4) 수출 환경도 개선

##### ○ 통일 이후 EU 확대, FTA확산 및 구동독 근로자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이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켜 구동독의 수출은 지난 20년간 9배 증가

- 통일 이후, 구동독의 수출 규모는 통일 이후 약 9배 증가하였고, 연평균 11.5% 증가하였음
  - 독일의 수출액은 1991년 4,000억 달러 2011년 1.47조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1991년 대비로도 약 3.7배 증가함
  - 구동독의 수출액도 1991년 88.2억 유로에서 2011년 774.3억 유로로 약 9배 증가하였는데, 동기간 독일 수출의 연평균증가율이 5.8%였으나 구동독 지역은 11.5% 성장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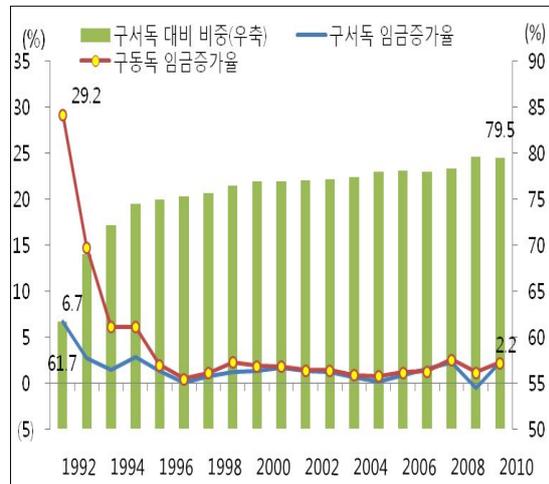
- 이는 2004년 동유럽 국가의 EU가입, 한국 등 주요국과의 FTA 체결 등으로 경제영토 확대가 확대됐고, 구동독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이 독일 전체의 임금 상승을 억제하여 경쟁력을 높였기 때문임
- 2004년 이후, 동유럽 국가의 가입으로 EU회원국이 27개로 늘었고, EU 칠레, 한국 등과의 25개 FTA를 체결함으로써 경제영토가 더욱 커졌음
- 통일 이후, 구동독 저임금 근로자가 구서독 지역에 꾸준히 유입되면서 임금 상승률을 낮춤. 구동독의 구서독 대비 임금 비중도 1인당 GDP 증가율 보다 낮게 유지되면서 경쟁력을 높임

<구동독의 수출액과 증가율 추이>



자료: 독일 통계청.

<구동독 임금 증가율과 비중>



자료: 독일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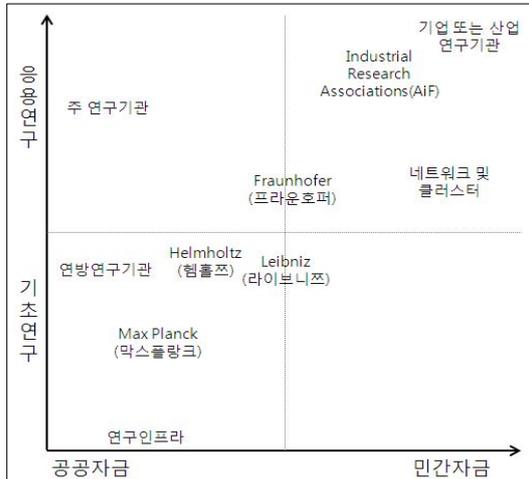
### (5) 연구개발 역량 강화

#### ○ 구서독의 경제 개발 모델과 연구 네트워크가 구동독에도 성공적으로 이식됨

- 구서독이 1990년부터 2000년대까지 집중했던 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성과 특화된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지역 개발 활성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통일 이후, 구동독 5개 주에는 대학, 공공 연구기관 95개 이외에도 연구기관과 중소기업 간 연구 컨소시엄 등 다양한 R&D 네트워크가 조성됨

- 구동독 지역에는 5개의 연방 연구기관 이외에도 독일의 대표적인 비대학 공공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 막스 플랑크, 헤켈츠 및 라이프니츠 연구소의 지역 센터와 부문별 연구소 70개가 설립됨
- 독일의 연구개발 지원 방식은 연방정부는 R&D 자금 지원, 주정부는 지역의 R&D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 구동독 지역 연구네트워크의 효과성을 높임
- 연방정부는 R&D 자금 지원도 지역 혁신정책의 큰 틀 안에서 낙후된 지역 중심으로 지원. 이에 따라, 2009년 기준 구서독 지역(베를린 포함)은 연구개발 자금의 약 65%가 기업 부문인 반면 구동독은 40%가 기업, 60%는 공공 부문에서 담당

<독일의 연구기관 분류>



자료: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

<구동독 지역 연구기관 현황>

구분	독일 전체	구동독소재
대학	- 370개 이상 (공과대학 200개)	- 60개 (32개)
프라운호퍼	- 80개 연구기관 (20개 해외 소재)	- 18개
헬름홀츠	- 17개 연구센터	- 3개
라이프니츠	- 87개 연구소	- 28개
막스플랑크	- 80개(해외 5개)	- 19개
과학아카데미	- 뮌헨 등 12개	- 2개
연방연구기관	- 38개	- 5개
주 연구기관	- 130개	- 20개

자료: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

주: 구동독 소재 중 베를린은 제외되었으며, 비 대학 연구기관은 통일 이후 대부분 설립

- 작센 州 등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주들은 구서독의 경제 성장 모델을 따르고 있음
- 특히, 구동독 지역 중 가장 경제가 발전한 작센 州는 기존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구서독의 바덴 뷚템베르그와 바이에른 주와 같은 지역 개발 방식을 그대로 따라감
- 이들 지역의 경제개발 방식은 기업과 연구기관의 혁신과정을 지원하고 리더 산업의 기업에 투자를 끌어들이어 공급과 생산체계의 네트워크를 형성한 후, 지역 전체의 경제를 성장으로 연결하는 것임

(6) 구동독 지역에 특화된 클러스터 조성

○ 구동독에는 지역에 기반을 둔 최첨단 산업 클러스터들이 조성되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있음

-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에는 48개(베를린 제외)의 클러스터가 조성됐고 최첨단 산업 연구단지가 집중적으로 설립되면서 산업 구조의 전환기를 맞이함
- 현재, 구동독 지역에는 에르푸르트를 중심으로 한 태양광 클러스터, 드레스덴을 중심으로 한 ICT 클러스터 등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획득해가고 있음
- 또한, 태양광, 바이오 및 나노 기술 등 최첨단 산업의 기초/응용/개발/상업화에 이르는 공공 연구기관들이 정부의 지원금을 바탕으로 구동독 지역에 집중 설립되면서 구동독 지역에 신산업 클러스터들이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음
- 2012년 현재, 구동독 지역<sup>4)</sup>에는 9개 클러스터가 독일 경쟁력네트워크<sup>5)</sup>에 포함

<구동독 주의 독일 경쟁력 네트워크에 속한 클러스터 현황>

클러스터	소재지	시작년도	특화분야
캠니츠 기계-플랜트 제조 클러스터	캠니츠	1992	-기계공학
초미세박막 나노기술	드레스덴	1998	-나노기술
철도기술 혁신센터	드레스덴	2000	-철도기술
실리콘 작센 (Silicon saxony)	드레스덴	2000	-ICT -나노-, 바이오기술
생물학적체계 식물의 게놈분석(GABI)	포츠담	1998	-식물 공학 -바이오기술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지리산업정보협회 (Geokomm)	포츠담		
Optonet	예나	1999	-광학기술
Medways	예나	2001	-안과분야 기술
Nemo-Spectronet Nemo-Viquanet	예나	2004	-ICT -분광이미지

자료: 독일 경쟁력네트워크(www.kompetenznetz.de).

4) 베를린은 제외

5) 독일에는 지역 기반의 특화된 클러스터가 약 280여개 이상 있는데 이 중 100여개가 독일 경쟁력 네트워크 (Kompetenznetze Deutschland)로 지원받고 있음

#### 4.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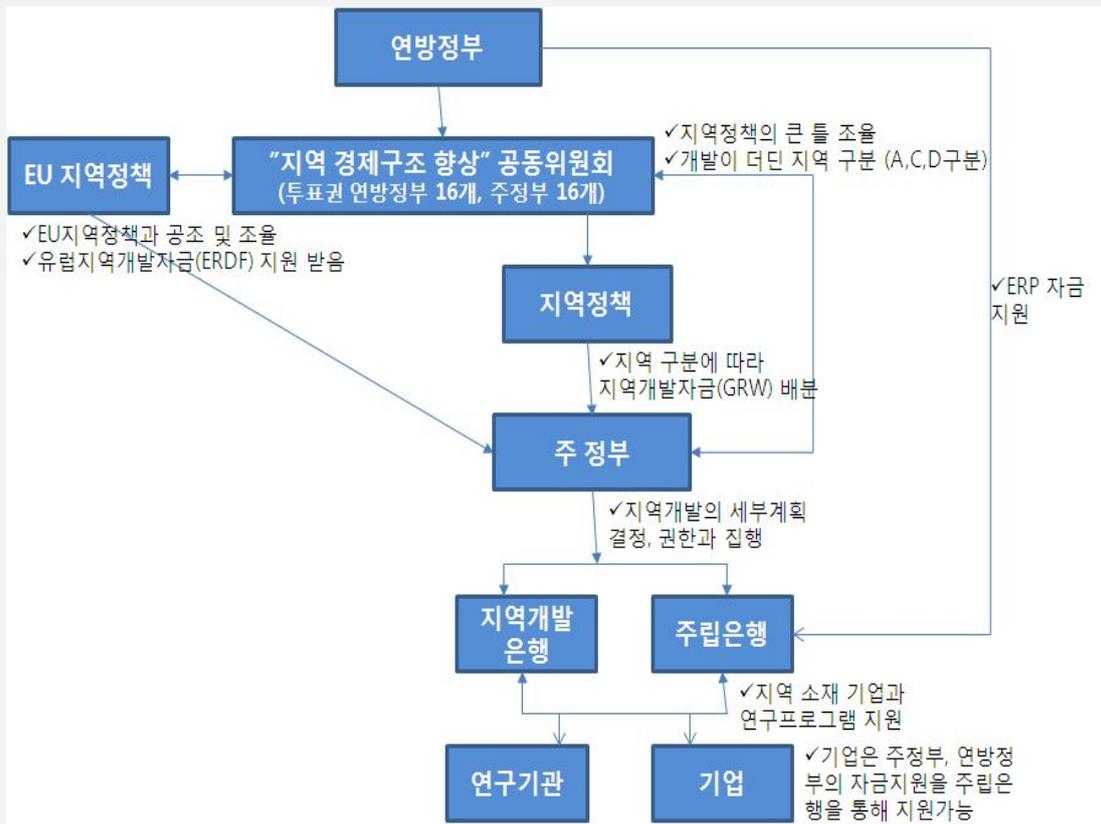
- 구동독의 성공적 발전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한 통일 이후 북한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와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첫째, 남북한 통일시 북한 지역의 인프라 투자 및 경제 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야 함
    -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에는 경제 재건과 인프라 및 주택 건설을 위해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총 3,432억 유로(약 500조원, 1유로=1,450원)가 지원되고 연방정부 지역개발자금의 85%가 구동독 지역에 지속적으로 투자되고 있음
  - 둘째,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 은행 등 국제 공적 자금은 물론 FDI 등 국제 민간 자본의 동원 계획도 마련되어 있어야 함
    - EU 회원국은 독일은 낙후된 구동독 지역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유럽 구조 기금 등에서 일정 부분 조달 가능했고, 구동독 주들은 여전히 농촌 개발, R&D 자금을 EU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 셋째, 북한 지역을 노동, 자원, 기술 집약에 따라 구분하고 지역에 특화된 노동집약적 특구, 자원개발 단지 및 ICT 등 북한의 지역적 특성과 경쟁우위를 살린 산업단지를 육성해야 함
    - 이 과정에서 투자 인센티브를 통해 국내 대기업 및 해외진출 국내 중소기업의 유턴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북한 지역의 자생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네트워크'를 중장기적으로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남한의 성공적 발전모델이 북한의 특성에 맞게 성공적으로 이식될 수 있도록 양쪽 모두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함

경제연구본부 조호정 선임연구원 (chjss@hri.co.kr)  
김동열 수석연구위원 (dykim@hri.co.kr)

<참고 2. 독일 지역개발정책의 구조>

- 지역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연방정부는 지역정책의 전반적 틀을 결정하고 지역경제정책 수행의 권한과 책임은 주 정부가 가짐
- 독일 지역경제 정책 수행은 주정부에 모든 권한이 있으며, 연방 정부는 생활환경을 동등한 조건으로 향상시키거나 주정부 간 공동규칙이 필요할 때에만 제한적으로 참여 가능
- 한편,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 공식적 회의체 보다는 비공식적 회의체가 실무그룹 중심으로 상시 가동되어 정책을 조율

<독일 연방과 주정부의 지역개발정책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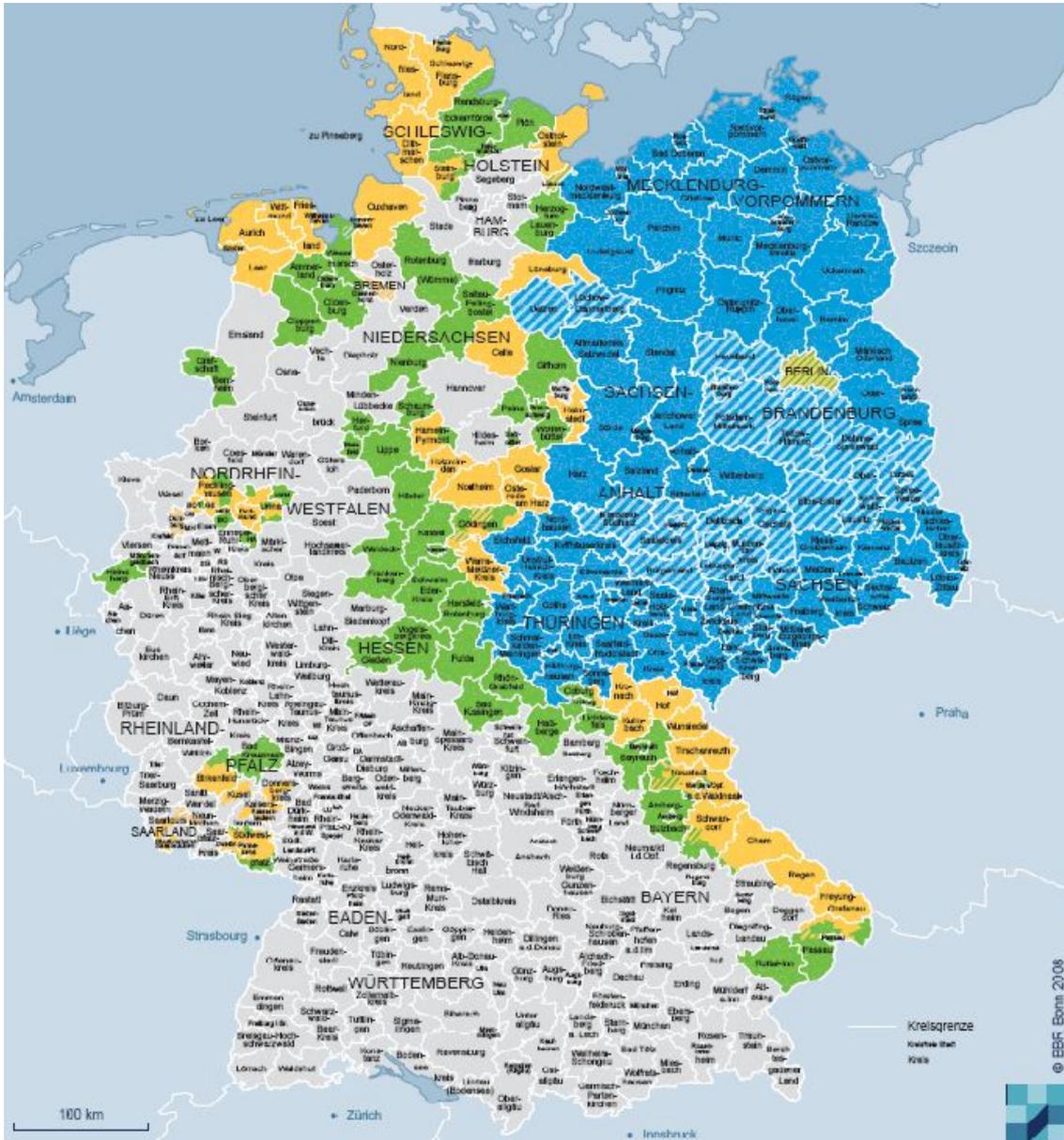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1) ERP(European Recovery Program)자금은 1948년 마샬플랜의 독일 경제 재건을 목적으로 지원된 자금으로 이후 연방정부의 ERP 특별자금으로 중소기업 혁신 지역개발 등에 지원. 2006년 현재 자금지원 규모는 1,210억 유로임.

2) GRW자금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에 지원되는 지역개발자금

<참고. 3> 독일 지역개발자금(GRW) 지원을 위한 지역구분



- A 지역
- D 지역
- C 지역
- 비지원 지역

자료: 독일 BMW(독일 연방 경제기술부).

- 주 1) 지역 구분에 따라 연방정부의 지역개발 자금 지원과 투자 인센티브들이 결정됨.
- 2) A지역이 구동독 지역으로 연방정부의 지역개발 자금을 주로 수혜하는 지역임.
- 2) 빛금 지역은 해당 지역 중 개발 및 지체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이 되는 지역임.

